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‘영익’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.

② ‘어머니’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한다.

③ ‘나’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.

④ ‘시장 안의 가게들’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드는 곳이다.

⑤ ‘천변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번화한 동네이다.